



핀란드 미드서머
나이트의
모닥불(Bonfire).

모닥불과 술과 춤이 어우러진 스칸디나비아 낭만의 향연 해가 지지 않는 미드서머 축제

이희숙 디자이너·저널리스트 leeheesook@hotmail.com

매년 6월 24일께 시작되는 스칸디나비아 미드서머(Midsummer)는 스칸디나비아 지방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축제의 하나다. 긴 겨울과 짧은 봄이 지나고 하루해가 거의 지지 않는 여름이 시작되는 때가 미드서머의 시기다. 물론 잠을 설치는 괴로움이 있지만 미드서머를 둘러싼 며칠 동안 스칸디나비아의 큰 도시에는 시민을 거의 볼 수 없고 여행자들만이 문이 닫힌 상점과 박물관 주위를 서성거린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나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도 언급되는 미드서머는 역사 및 신화에도 연관이 된다. 미드서머, 노르웨이어로 '산탄스(Sansthans)' 또는 '욘소크(Jonsok)'라 부르는 이날은 역사에서 세례자 성 요한(St. John, the Baptist)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서 그의 이름을 따 욘(Jon), 요한(Johan) 또는 한스(Hans)로 불리게 되었다. 이날을 휴일로 정한 이유는 기독교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마리아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다. 천사가 3월 25일

마리아 앞에 나타나 임신 6개월인 엘리자베스에게 3개월 후에 태어날 아들이 요한임을 알리고 기독교인들은 그의 생일 6월 24일을 신성한 날로 정하여 이브 날에 탄생축하 기념축제를 하게 된 것이다. 미드서머에는 교회에서 특별미사가 열리고 모든 사람이 휴일로 보낸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신강림절, 미드서머 사흘이 공휴일이었으나 덴마크 총리 스트뤼네스가 미드서머 사흘 중 마지막 날을 근무일로 바꾸었다. 당시 덴마크 지배를 받고 있던 노르웨이 서쪽 지방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상점의 문을 닫았으며, 그 관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무튼 사람들은 미드서머 이브에는 항상 파티를 하었는데 여기에는 성 요한 탄생기념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모여 독한 꿀술을 마시고 발할(Vallhal)의

전쟁 신들을 찬양하였다. 이튿날은 산기슭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농민들에게 잠깐 휴식하기에 좋은 따뜻하고 밝은 날이었다. 자연히 그들은 미드서머 이브를 위하여 맥주 제조법을 만들었고, 모닥불 주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음악에 맞춰 춤과 오락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사람들이 자동차와 배를 소유하게 되자 가족과 친지들 간에 개인파티가 생겨서 이튿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이 파티는 주말이 아닌 경우 그다음 날 직장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스웨덴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 미드서머가 가까운 주말을 축제일로 만들어서 도시 사람들이 시골로 떠난다. 그들은 미드서머 전날 아침부터 집, 자동차, 교회, 무도회장에다 꽃으로 장식하고 전통복장을 한다. 또 광장이나 저택의 정원에 화환이 달린 긴 기둥(메이플)을 만들어서 점심때는 그것을 들어 올렸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그 주위를 돌면서 음악에 맞춰 민속춤을 춘다.

기독교와 토착 미신이 합쳐진 기념일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부터 스칸디나비아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6개월간의 긴 겨울의 눈과 추위가 끝나고 따뜻한 태양, 자작나무의 신록, 수천 가지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밤공기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게 됨을 축복하는 의미다.

미드서머 이브는 낭만과 꿈들로 가득 차는데 특히 젊은 여자들은 그날 밤 어떤 남자와 결혼할 것인지를 미리 알게 된다. 들녘에 나가 아홉 가지의 서로 다른 야생화를 따서 머리말에 두고 잠자리에 들면 남편이 될 사람의 얼굴을 꿈꾸게 된다는 것이다.

모닥불을 피우는 또 다른 이유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을 기념하는 일 외에도 항상 활동하는 마녀들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부지깽이를 사용하고, 노르웨이에서는 빗자루에 십자가를 새겨서 거기에 침을 세 번 뱉으면 마녀들이 견딜 수 없게 된다고 믿는다. 또 영험이 있는 나뭇가지를 문이나 창문 틈새에 놓아두거나 철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 마녀를 쫓아낼 수도 있다. 이날 밤 공중에서는 마녀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 이는 디오니소스식 축제인 연 총회에 참석하러 가는

마녀들이 빗자루를 타고 지옥 입구에 위치한 회합 장소로 날아가는 소리다. 마녀들의 행진을 보려면 길 교차로에 앉아서 백양나무 화관을 머리에 쓴 채 부지깽이를 들고 있거나 아홉 가지의 서로 다른 야생화를 불에 태우면 된다.

마녀들이 회합 장소에 도착하면 두목 마왕과 이날의 여주인공인 두목 마왕의 할머니로부터 환영 키스를 받는다. 그 후 할머니는 마녀들로부터 1년 동안의 행위를 자백 받고 보고서를 심판하는데 이 장면은 덴마크 셸란 섬의 벨요 교회 설교단에 묘사된 괴상한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축제가 시작되면 두목 마왕은 마녀들에게 멋진 남자 마귀를 파트너로 하사하고 그들은 농담, 유희, 춤, 술로 밤을 지새운다. 이날 두목 마왕은 가장 강하게 활동하는 마녀에게 연설을 시키고, 두목 마왕의 할머니는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행동한다. 축제가 끝나고 돌아갈 때 마녀들은 두목 마왕의 뜨거운 포옹을 받게 되는데 이는 마피아 두목처럼 형제의 단합과 충성심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몇 백 년 동안 사람들은 비정상적 환상 같은 모습으로 마녀들을 창조해 내었는데 실제

노르웨이에서는 제정신이 아니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부르면서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어린 시절 마녀와 악마의 공포로 어두운 시절을 보낼 것이라는 주술가의 예언을 평생 철저히 믿었다고 한다.

마녀들의 회합 장소는 노르웨이의 경우 베르겐 근교의 리더톤이며, 스웨덴은 블로콜라 동쪽에 있는 섬이고, 덴마크 마녀는 마녀의 본고장인 독일 뷔르츠베르크, 노르웨이 또는 아이슬란드의 헤클라에서 각각 모인다. 16세기 중순의 한 기록에 따르면 헤클라 화산 주변에서는 매일 마녀와 귀신들의 아우성과 신음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곳 사람들은 전쟁이나 피 흘리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소리를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미드서머 이브에는 마녀뿐만 아니라 지하 귀신들도 주의해야 한다. 한 예로 남자와 여자들이 축제 때 소리 없이 사라져서 목이 잘린 채로 발견된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지하 귀신이 힘을 행사한 것이다. 미신에 따르면 이날 밤은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효험이 가장 있는 날이다. 특히 교회



스웨덴 오르스네스의 미드서머 축제 모습.



03

큰 캔버스에 담는 것이 유행이었다. Plein air(in the open air) 페인팅은 옥외에서 빛과 컬러를 직접 캔버스에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유일한 풍경, 특수한 움직임, 색채가 풍부한 지역 주민 등이 스카겐 예술가들에게 1870년 말 예술집단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들이 가장 애호하는 장면은 해변에서 일하는 어부들, 조그만 집, 풍경, 예술가들의 생활이었다. 주민의 절반 이상이 어부로 일하는 스카겐은 어업마을로서 이곳 예술가들의 일상적인 모티브가 되었다. 가장 이름난 화가로는 'Summer Evening on the South Beat at Skagen'(1893)을 그린 페데르 세베린 크뢰위에르(Peder Severin Krøyer, 1851~1909)를 들 수 있다. 스카겐 페인팅은 현대 기술을 사용한 예술가들로 구성된다. 한 가지는 포토그래피의 사용으로, 이것을 통해 작풍 구성의 아이디어가 간직될 수 있고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재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 이곳 여름은 너무나 짧아서 예술가들은 컬러와 빛 연구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옥외 페인팅임에도 전시회를 위한 대형 구성 작품은 여전히 스튜디오에서 완성되었다. 'Summer Evening on the South Beat at Skagen'는 크뢰위에르가 해가 지기 전에 해변에서 찍은 저녁 사진들의 하나를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1880년 후기와 1890년 초기에 덴마크에서 가장 인기를 끈 풍경화 장르의 대표작이다. 블루페인팅(Blue Painting)이라 부르는 이 장르는 비현실의 연한 자줏빛, 블루 팔레트의 흐름으로 이름이 났다. 비록 제임스 애벗 휘슬러가 추구한 프랑스 합성(synthetic) 예술에 기초를 두었지만 이 스타일은 또한 스칸디나비아 특징의 분위기에서 발전된 것이다. 미드서머의 저녁, 블루 아우어의 밤 10시께 낮은 태양이 푸르고 희미함으로 용해되면서 황혼을 이룬다. 휘슬러의 영국 런던의 안개 낀 야경이나 뫼비드 사반의 먼빛과 상통하는 북유럽 현상으로 크뢰위에르는 여러 장면을 그렸는데



04

이것은 당시 코스모폴리탄의 주 흐름에 대한 그의 필요성과 동시에 스카겐 야외를 그리고 싶은 그의 선호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크뢰위에르는 1891년에 시작한 해변의 여성을 사망할 때까지 재차 그렸다. 이 그림은 1892년 그의 집에서 열린 만찬 전에 구상하고 나중에 여름밤을 즐기려고 안나 앙케르와 그의 아내 마리가 해변을 산책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스튜디오에서 그렸다. 실제 해가 질 무렵의 저녁 산책은 스카겐 예술가에게만 한정된 전통이 아니다. 1890년에 많은 관광객이 여기에 머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그림에서 크뢰위에르는 끝없는 해변을 강조하면서 두 여성을 다소 멀리 위치시켰고, 그들에게 화이트와 짙은 블루 드레스로 아르누보의 우아함을 담으면서 그들의 곁은 형태를 곡선의 섬세함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마지막



핀란드 미드서머 기념우표

태양의 황금빛은 모래 언덕을 여전히 비치며 깊은 발자국을 파낸다. 'Summer Evening on the South Beat at Skagen'은 조용한 순간을 포착한 1880년 크뢰위에르의 저녁 그림 분위기와 전연 다르다. 해변을 따라 두 여성이 산책하는 친밀함은 침묵과 비밀의 대화 속에 잠기며, 그들이 관중에서 더 멀리 사라짐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개념을 뜻한다. 스카겐의 꿈에 상응하는 이 저녁 분위기에 스카겐 예술가들은 크뢰위에르의 스타일을 따랐고, 시골풍의 전통 어부 이미지는 스카겐의 확대되고 빛나는 풍경 분위기로 바뀌었다.



05

크뢰위에르의 마지막 대형 그림으로서 실제 미드서머를 다룬 'Midsummer Eve Bonfire on Skagen's Beach(1906)'는 스카겐 예술집단을 찬사하는 표현을 의도해서 그려졌다. 크뢰위에르 자신은 이 그림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은 미드서머 이브의 모닥불 주변에 큰 원형으로 둘러 서 있는 스카겐의 예술가와 주민들을 그린 것이다. 크뢰위에르는 예술가들을 밝은 색상으로 왼쪽에, 스카겐 주민은 어두운 색상으로 오른쪽에 각각 위치시켰다. 마지막으로 아이슬란드의 오스그리무르 욘손(Asgrimur Jonsson, 1876~1958)이 그린 '헤클라(Hekla, 1908)'에서 우리는 20세기 초의 헤클라 화산을 볼 수 있다. 욘손은 그가 태어난 아르나시슬라 농장과 언덕 너머의 상승하는 헤클라 산을 묘사했다. 인간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위엄 있는 헤클라의 눈 덮인 산봉우리와 그 아래 위치한 농장에서 배어 나오는 가느다란 화색 연기는 이른 아침 여명의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 속으로 상승한다. 이 파노라마의 전경은 젊은 욘손에게 크고 아만스런 캔버스를 만들게 했다. '헤클라'를 그린 것은 처음으로 그가 인상주의 그림을 본 1908년 베를린 여행 이후다. 아이슬란드 국가문화의 상징인 헤클라(1557m)는 유럽에서 제일 높은 산들의 하나로, 활화산이다. 중세기 유럽 기독교에서 지옥으로 가는 입구나 저주받은 사람들의 장소로 악명이 높다. 지방 민속에 따르면 마녀 집회의 전형 장소다. 욘손이 그림을 그리던 시대에 헤클라의 마지막 분화는 1845~1846년으로, 주위의 농장들을 전부 파괴되어 이러한 광활하고 불친절한 자연 속에서 집들이 외로운 전초지로 나타난다. 차갑고 조용한 파노라마에도 헤클라의 격한 역사와 잠재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미드서머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단지 여름을 축하하는 전통을 넘어 20세기 초의 국가주의 여명기에 들어와 스칸디나비아 국민의 감정을 표현하는 정체성으로서 무형 유산이 되었다. ❶